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결승전이 3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치러졌다. 광일리그 우승을 차지한 카멋진남(감독 신주열·왼쪽)과 무등리그 우승을 차지한 자연환경유한회사야구단(감독 정상현) 선수들이 행가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카멋진남 V-KOOL·자연환경유한회사야구단 “우승이다”

〈광일리그〉

〈무등리그〉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폐막

카멋진남 V-KOOL, W웨딩컨벤션에 9-6 잡고 우승
자연환경유한회사야구단, 타요바리스타즈 18-9 제압
32개팀 1천여명 무등·광일리그 2개월 대장정 마무리

대회를 지켜본 사회인 야구 동호인·관계자들의 예상대로였다. 1만여 광주 야구 동호인들의 잔치인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우승컵은 ‘카멋진남’과 ‘자연환경’에게 각각 돌아갔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주최로 30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카멋진남 V-KOOL’팀은 광일리그, ‘자연환경유한회사야구단’은 무등리그 정상에 오르며 ‘가을잔치’의 주인공이 됐다. 이번 대회는 32개팀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등·광일리그로 나뉘어 치러졌다. 무등리그의 경우 이른바 ‘선출’(고교 이상 선수 출신)이 1명만 경기에 나설 수 있고 광일리그는 ‘선출’ 참여를 제한한다. 비

록 ‘선출’이라도 만 45살이 넘으면 일반 선수와 같다. ‘카멋진남’은 이날 열린 광일리그 결승전에서 ‘W웨딩컨벤션’을 9대 6으로 누르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카멋진남은 1회초 2점을 먼저 내줬지만 1회말 끝바로 반격에 나서 조영운의 3루타와 이형수의 안타로 동점을 만들고 정성민·조영오의 적시타로 5점을 몰아내며 앞서나갔다. W웨딩컨벤션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5회초 무사 만루 찬스에서 상대방의 에러와 볼넷에 안타·도루를 섞어가며 5점을 뽑아내 6대 5로 경기를 뒤집었다. 카멋진남은 그러나 5회말 1점을 따라붙으며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었고 6회말 조명운의 3루타와 공명규의 우중간을 가르며 3점을 더 달아나

면서 승기를 잡았다. ‘자연환경유한회사야구단’과 ‘타요바리스타즈’가 맞붙은 무등리그 결승전은 호쾌한 타격전 끝에 승부가 갈렸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타요’가 잡았다. 타요는 1회 초, 무사 만루 찬스에서 5번 마준이 좌중간 펜스를 넘는 만루홈런을 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자연환경’은 곧바로 반격을 시작, 1회말 단숨에 8점을 뽑아내며 경기를 뒤집었다. 자연환경의 타자 12명은 1회에 1볼넷에 4개의 2루타를 곁들이며 8점을 몰아쳐 승기를 굳혔다. ‘타요’는 3회초 6번 위동철의 2루타와 4회 이기남의 2점 홈런 등으로 분위기가 반전을 시도했으나 2회말(1점), 3회말(6점)에서 잇따라 대량 실점하면서 자연환경의 ‘기세’를 막지 못했다.

무등기 결승 전적
◇광일리그
W웨딩컨벤션 020 040 0 6
카멋진남 V-KOOL 050 013 X 9
▲승리투수=정호영

◇무등리그
타요바리스타즈 402 300 0 9
자연환경유한회사야구단 816 120 X 18
▲승리투수=고현무 ▲홈런=마준(1회 4점) 이기남(4회 2점·이상 타요바리스타즈)

지난해까지 무등리그 2연패를 달성했던 강력한 우승후보 ‘무등산생태야구팀’은 8강에서 탈락, 아쉬움을 남겼다. 대회를 지원한 이학재 아로마라이프 회장은 “우승, 준우승을 떠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면서 “경기를 진지하게 즐기며 스트레스도 날리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좋은 경기를 펼쳐 준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로마라이프가 함께한 이번 대회는 광주시야구협회 주관, 광주시체육회, 전남도체육회 후원으로 치러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승부 떠나 정 나누는게 사회인 야구 지역 사회 유대감 강화하는 데 한몫”

이학재 아로마라이프 회장



‘우승, 준우승을 떠나 모든 선수·가족이 함께하면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사회인 야구의 묘미가 아닐까’ 이학재(59) ㈜아로마라이프 회장의 사회인 야구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사회인 야구가 지역 사회가 한층 더 밝아질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직장동료나 이웃끼리 팀을 구성하고 운동장에서 힘껏 공을 던지고 시원하게 받아내다보면 끈끈한 조직력과 동료애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야구를 통해 팀 동료뿐 아니라 경기장을 찾은 가족끼리도 함께 하는 기회를 갖게되는 만큼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운동이냐”고도 했다.

이 회장이 지난해부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를 지원하며 스포츠를 통한 나눔 활동에 힘을 쏟는 이유이기도 하다. 야구 뿐 아니라 이 회장의 나눔 정신은 지역 사회에서 소문난 지 오래다. 그는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 개인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이 됐다. 부인 이광은(58) ㈜메르시 대표도 그와 함께 ‘나눔 바이러츠’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부부는 8년 넘게 연말이면 연탄과 쌀을 배달하고, 직원들과 김장 5000포기를 담가 이웃들에게 건네왔다. 매년 자신들의 수입에서 30% 상당을 이웃을 위해 거둬들이는 기부 행위는 지역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지역 사회 평가다. /김지을기자 dok2000@

무등기 야구 우승 감독·MVP 인터뷰

신주열 카멋진남 V-KOOL 감독 “창단 2년만의 우승 기뻐 카멋진남 내년 2연패 도전”

“창단 2년만에 우승까지 하게돼 너무 기쁩니다” 광일리그 결승전에서 W웨딩 컨벤션을 상대로 9대 6으로 승리를 거둔 ‘카멋진남 V-KOOL’의 신주열(34) 감독은 우승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회 5-2로 앞서나갔다 5회 4실점으로 역전당해 위기였다”는 신감독은 “교체된 투수와 수비수들의 짜임새있게 경기를 풀어 승리할 수 있었다”며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과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2015년 다른 팀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카멋진남’ 신 감독은 “월등한 실력들이 아니어서 모두가 열심히 인 것 같다. 내년에 있을 무등기대회에도 출전해 2연패를 노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일리그 MVP 정종남 “중간계투·야수 믿어 좋은 결과 가족같은 분위기 야구할 맛 나”

“뒤에서 받쳐준 동료들 덕분에 정말 편하게 공을 던졌습시다” ‘카멋진남 V-Kool’의 선발 투수 정종남(42)이 광일리그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5회까지 마운드를 책임진 정종남은 “5회 실점하긴 했지만 중간계투와 야수들을 믿었기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우승과 함께 좋은 상까지 받게 되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0년 사회인 야구에 처음 발을 들인 정종남은 2015년 팀을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창단멤버다. 그렇기에 그는 항상 팀원들과의 호흡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경기에 임한다. 그는 “팀 분위기가 마치 가족같아서 야구할 맛이 난다. 앞으로도 팀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좋은 성적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수줍게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정상현 자연환경유한회사야구단 감독 “남다른 팀워크로 위기 극복 신뢰·우애 더 돈독히 하겠다”

“1회 만루홈런 맞았을 땐 아찔했죠. 하지만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합니다” 무등리그에서 타요바리스타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자연환경유한회사야구단 정상현(42) 감독에게는 우승이 꿈만 같다. 정감독은 “결승전이라는 부담 때문에 선수들이 살짝 긴장해 실점했지만 개인적으로 잡히는 선수도 많고 팀워크만큼은 다른 팀에 비해 훨씬 좋아 값진 결과를 만든 것 같다”며 자평했다. 자연환경야구단은 2012년 준우승에 2013년에는 이 대회 우승을 거머쥐며 저력있는 팀. 정감독은 “내가 잘했다기 보다는 팀원들이 잘해줘서 나온 결과다. 지금까지 팀원들간에 신뢰와 우애를 돈독히 하면서 팀을 이끌어갔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등리그 MVP 양건우 “팀원 실력 믿어 자신있게 던져 내년에도 좋은 성적 이루겠다”

팀이 우승을 했다는게 더욱 기쁩니다. MVP로 선정해준 팀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등리그의 최우수선수는 양건우(3루수)에게 돌아갔다. 양건우는 이날 5타수 4안타(2타점, 3득점)를 때려내며 팀이 승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1회 크게 실점했는데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팀원들의 실력을 믿었기에 자신있게 경기할 수 있었죠”라며 소감을 밝혔다. 양건우는 진흥고에서 야구를 했던 선수 출신. 코치를 겸하는 등 성실한 동료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는 “내년에도 무등기 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이루고 싶다. 팀원들 모두가 지금까지만큼 해준다면 문제없을 것”이라며 당찬 각오를 내비쳤다. /김진수기자 jeans@

